

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역대 최대 사업비 7477억 원 투입

등록 2026.01.26 18:22:54



[창원=뉴스시스]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사진=농어촌공사 경남본부 제공) 2026.-1.22.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스시스] 김기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2026년 농어업·농어촌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기 위해 역대 최대 사업비인 7477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경남지역본부는 올해를 지속 가능한 농어촌 혁신을 위한 기점으로 설정하고 기후 위기 대응부터 안전관리, 스마트 농업 확산,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까지 현장 체감형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가뭄과 집중호우 등 반복되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노후 저수지 등 농업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농업용수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기반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특히 경남지역본부는 2026년 사업 전반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적용한다.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 공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스마트 안전 장비 확대 운영으로 안전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미래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마트 농업 전환도 속도를 낸다.

임대형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조성하고 대규모단지를 매입 후 청년농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청년이 돌아오는 농어촌 실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어촌 기능 회복을 위한 지역개발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농어촌마을의 생활 SOC확충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경남지역본부는 지자체, 농어민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경남 농어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